

혜손 전 실상사 탐비 탁본 발견

일본 덴리대학 도서관 소장 '대동금석서'에
현존 유일한 탁본으로 중요한 가치 지녀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 발간

이종근 기자

lig@sjbnews.com

혜손되기 전, 실상사수철화상보월탐비(보불 제34호) 원탁본이 일본 덴리대학 도서관 소장의 '대동금석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대 중앙도서관, 성균관대 박물관, 일본 덴리대학 도서관 등에 탁본이 남아있지만 이들 모두는 1714년 다시 비석을 세운 뒤의 탁본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다른 탁본이나 비석에는 전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유일한 탁본이라는 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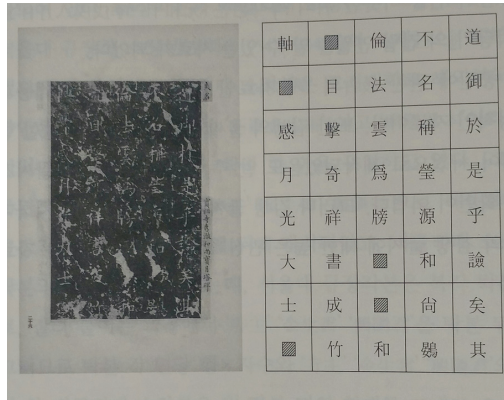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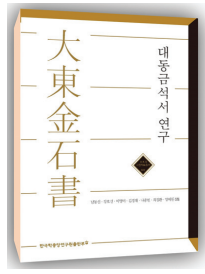


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세기 전반 일본으로 건너간 후, 그 존재 자체가 잊혀졌던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 원본을 발견, 조사 연구한 결과를 담은 '대동금석서 연구'(지은이 남동신 외)를 통해서다. 신라시대 '황초령진흥왕순수비'(568)로부터 조선시대 '청풍부원군김우명신도비'(1687)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금석문 280여 종에 대한 탁본 400여 건을 수집, 편집한 '대동금석서'는 17세기 전반 출현한 금석문 탁본점의 전형을 지니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남동신 교수(서울대학교, 국사학) 팀이 '대동금석서' 7점 전체를 최초로 조사 연구, 발간한 이 책은 문헌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고·중세사 연구를 보완하고, 조선시대사 연구에서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금석문들을 새로운 사료군으로 학계에 알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상사수철화상보월탐비는 실상사에 위치한 수철화상의 탁본이다. 수철화상은 통일신라 후기의 승려로, 본래 심원사에 머물다가 뒤에 실상사에 들어가 수도하였다. 진성여왕 7년(893) 5월 77세로 이 절에서 입적하자 왕이 시호와 탐명을 내렸다고 한다. 비문에는 수철화상의 출생에서 입적까지의 행적과 사리탑을 세우게 된 경위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실상사에서 입적하였으나 심원사의 승려이었기 때문에 비문에는 '심원사수철화상'으로 적고 있다. 비문을 짓고 쓴 사람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마



멸과 손상이 심한 편이다. 탐비의 형식은 당시의 일반적인 탐비 형식과는 달리 거북모양의 받침돌 대신 안상(眼象) 6구를 얹게 새긴 직사각형의 받침돌을 두어 그 위로 비를 세웠다. 비를 꽂아두는 비좌(碑座)에는 큼직한 연꽃을 둘렀다. 머릿돌에는 구름 속에 웅 두마리가 대칭하여 여의주를 다투는 듯한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 그 앞면 중앙에는 '능가보월탐비'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조각수법이 형식적이고 꾸밈이 약화된 경향이 뚜렷하다. 비의 건립 연대는 효공왕(재위 897~912)대로 추정되고, 글씨는 당대를 전후하여 성행한 구양순체를 따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원탁본을 보고 판독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비석 하반부는 가장 최근에 진행된 최경선의 판독문이 정확함을 확인했고, 현존하는 판독문에서 읽지 못했던 상(尙)자를 새롭게 읽어냈다.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의 '퇴휴부인묘갈(退休夫人墓碣)'은 양국 소세양(1486~1562)의 부인이 아닌, 어머니의 묘갈 일부를 탁본했다. 이 비의 탁본은 경성재에서 영인한 '대동금석서(1932)'와 '조선금석총람'에 실려 있지 않다. 건립 시기는 소세양이 죽기 1년전 1561년으로 확인된다. 이계맹(李繼孟, 1458~1523)비는 그가 죽은 지 100년이 넘는 1648년에 와서야 김제에 건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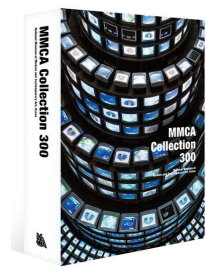
박래현 채용신 진환 이건용,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00' 영문 번역본에 소개

국립현대미술관은 해외 독자들이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00'의 영문 번역본 'MMCA Collection 300'을 펴냈다.

박래현 노점을 비롯, 채용신 고종 황제 어진, 진환 혈, 이건용 신체드로잉 등 전북 관련 작가들의 면면도 드러났다.

1910년대에는 조석진이 갈대(노) 숲을 배경으로 땅과 하늘의 기러기(안) 떼를 묘사한 작품 '노안'(蘆雁:1910)을 시작으로 안중식의 '산수'(1912), 한국 첫 서양화가인 고희동의 '자화상'(1915) 등 3점이 수록됐다. 1920년대는 어진화사로 유명하며 전북에서 활동한 채용신의 '고종 황제 어진'을 비롯, 김은호·이상범·김주경·김중태 등의 8점, 1930년대는 이인성·도상봉·김기창·김복진·김환기·오지호 등의 16점이 선정됐다.

이어 1940년대는 고창출신 '진환'의 혈을 비롯, 임군홍과 허백련·이쾌 등의 14점이, 1950년대는 이중섭·장욱진 등의 32점이 실렸다. 1960년대는 박수근의 '할아버지와 손자' 등 25점이, 1970년대는 이우환의 '선으로부터' 등 16점, 1980년대는



백남준의 '다다익선' 등 50점, 1990년대는 52점, 2000년대는 68점이 엄선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9년 개관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미술관이 수집해 온 소장품의 수준을 대표하는 300인(팀)의 작품 300점을 수록한 선집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00'을 출간했다. 선집은 출간 직후부터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미술 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영문본 출간은 최근 한국 문화에 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 미술의 대표작을 해외 연구자와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번 영문본을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300인(팀)의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고 한국미술이 국제적으로 더욱 알려지고 연구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근 기자



강명선현대무용단, 베토벤을 춤사위로 담다

전주 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서 베토벤 '결작의 숲'

2020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강명선현대무용단이 29일 오후 7시 30분 전주 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베토벤 '결작의 숲'을 선보인다.

창작초연 '결작의 숲'은 올해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 그 모티브가 됐다.

베토벤의 삶과 음악이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깊은 감동과 여운을 주는 이유를 되새기면서 그의 작품들을 다양한 장르의 춤을 덧입혀 재해석, 관객들에게 선보임으로써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그의 음악을 다양한 '몸짓'을 통해 다 가설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의 장을 만든 것.

현대무용계에 혁명을 일으켰던 이사도라 당점이 있다면, 베토벤은 음악계에서 혁명을 일으킨 음악가다. 고지식한 음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극단적인 감정표현과 대규모의 스케일을 도입, 기존의 고전을 깨뜨린 작곡가입니다. 베토벤의 곡을 재해석해서 갈라 콘서트

(gala concert) 형식으로 무대를 연출했다. 작품은 오프닝 〈파도여 일어나라〉, 〈영혼의 울림〉, 〈고전주의 시대에 태어나 남만주의 시대로 문을 열었다〉, 〈고전적 소나타 양식의 파괴〉, 〈불멸의 연인〉, 〈삼십대 초반에 모든 것을 달란한 철학자〉, 엔딩 〈마음의 눈〉 등으로 계속된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그 눈은 작고 깊숙이 들어가 있어도 정열이나 노여움에 사로잡히면 갑자기 커지면서 내부의 모든 생각을 뚜렷하게 내비쳤다. 그 눈은 때로는 우울한 빛을 띠고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다. 베토벤의 따뜻한 눈과 그 눈이 나타내는 깊은 슬픔에 그만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이를 참느라 애를 먹었다. 이는 〈마음의 눈〉이다.

강명선 총감독은 "그래서 전통에 현대가 덧입혀진 창작품의 깊이는 배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갈라 쇼로 보는 베토벤 〈결작의 숲〉공연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종근 기자

20세기 한국 화단 대표하는 여성작가 '박래현' 재조명 회고 청주전

국립현대미술관, '박래현, 삼중통역자' 전 덕수궁서 종료,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순회

국립현대미술관은 '박래현, 삼중통역자'전을 덕수궁에서 종료하고, 26일부터 5월 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순회한다.

20세기 한국화단을 대표하는 미술가 우향 박래현(1920~1976)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 작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재조명한다. 청주는 박래현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지역이다. 박래현의 삶과 예술이 영원한 잠에 든 장소이기 때문이다. 평생 삶과 예술의 여정을 함께 했던 운보 김기창은 박래현과 사별 후에 어머니의 고향인 청주로 내려가 '운보의 집'을 짓고 박래현과의 추억을 기리며 여생을 보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미술품수장센타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근대미술 전시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순회전이지만 청주에서만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도 있다. 김기창이 그린 박래현의 이색적인 초상화 〈화가 난 우향〉(1960년대)이다. 청각장애를 지

닌 유명 화가의 아내이자, 네 자녀의 어머니, 그리고 예술가로서 어느 것도 털어내기 어려웠던 박래현의 삼중의 삶을 압축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집안일을 마친 밤 시간에야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던 박래현을 김기창은'부엌'이라고 불렀는데, 늘 깨어있었고, 고단했고, 무척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박래현에 대한 그의 예리하면서도 애정 어린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박래현, 삼중통역자' 순회전은 덕수궁과 동일하게 1부 한국화의 '현대', 2부 여성과 '생활', 3부 세계 여행과 '추상', 4부 판화와 '기술'로 구성되며, 청주의 전시공간에 맞추어 압축적으로 전시된다.

전시명인 '삼중통역자'는 박래현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 표현한 명칭이다. 미국 여행에서 박래현은 여행가이드의 영어를 해석, 다시 구화와 몸짓으로 김기창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여행에 동행한 수필가 모윤숙이 그 모습에 관심을 보이자 박래현은



자신이 '삼중통역자'라고 표현했다. 박래현이 말한 '삼중통역자'는 영어, 한국어, 구화(구어)를 넘나드는 언어 통역을 의미하지만, 이번 전시에서의 '삼중통역'은 회화, 태피스트리, 판화라는 세 가지 매체를 넘나들며 연결되었던 그의 예술 세계로 의미를 확장했다. /이종근 기자

NAVER
아시아펜스
검색

(주)아시아 회사전경

펜스제조전문기업

조달청 3자단가 물품계약업체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
펜스산업의 미래를 함께하는 기업,
(주)아시아입니다.

Aga (주)아시아 T. 063-263-8250 A. 전북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472

(주)아시아 협력기업

남원철망펜스 T. 063-626-4286 A. 전북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720-6